

미국은 인종주의의 아성

리 성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인종주의의 아성입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493페이지)

인종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피부의 색깔에 따라 규정하고 인종들간의 선천적《우열》을 전제로 삼은데 기초하여 한 인종에 대한 다른 인종, 주로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의 침략과 지배, 증오와 멸시를 합리화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이다.

오늘 미국은 자본주의나라들중에서 인종주의정책을 가장 집요하고 악랄하게 실시하는 나라로 되고있다.

미국이 인종주의의 아성이라는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세계면전에 드러난 역사적사실과 자료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인종주의의 아성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진 인종주의국가의 표본이기때문이다.

오늘 미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인종주의는 자기의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미국의 인종주의의 역사적뿌리는 미국국가형성과정에 마련되였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그 형성과정자체가 인종주의적성격을 띠였다.

우선 미국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며 주인인 인디언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주로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 침입하여 인디언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세운 나라이다.

미국국가형성의 기초는 원주민들의 광대한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온갖 식인종적인 방법으로 마련되였다.

아메리카대륙에 기여든 양키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잔인한 《인종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인디언들을 멸종시키기 위한 양키의 조상들의 책동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식인종적방법으로 감행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인디언들을 남녀로소할것없이 모조리 불태워죽이고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로 찢러죽이였으며 사망률이 높은 콜레라, 페스트 같은 병균을 퍼뜨려 죽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양키들이 인디언들의 머리가죽을 벗기여 기념품으로 가지고 다니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디언에 대한 살인만행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감행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인디언도살만행은 양키들이 도사리고있던 모든 지역에서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뉴잉글랜드지역의 양키립법회의는 1703년에 인디언의 머리가죽 한장 혹은 포로 한명에 대하여 40 £의 상금을 준다는것을 결정하였고 1720년에는 머리가죽 한장의 값을 100 £로 올렸다.

식민주의자들은 《인디언들은 죽어야 한다.》, 《죽은 인디언만이 좋은 인디언이다.》라는 식인종적인 구호를 들고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거의 멸종시키다싶이 모조리 학살하였다.

이러한 살륙만행으로 하여 식민주의자들이 밭을 들여놓을 당시 150만명이상 있었던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19세기말에는 15만명으로 줄어들게 되였다.

인디언들에 대한 인종말살책동은 미국국가형성을 위한 령토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또한 미국은 범죄적인 흑인노예무역과 흑인노예제도의 수립으로 국가형성의 경제적으로 대를 마련하였다.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양키의 조

상들은 북아메리카에서의 자본주의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확보의 일환으로서 노예획득을 위한 아프리카흑인노예무역을 시작하였다. 흑인들이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에 끌려간것은 1619년이였다.

흑인들에 대한 사냥은 주로 해적무리들에 의하여 감행되였다. 당시 앵글로-색슨족들의 해적행위는 결코 그 어떤 모험적인 해적들의 개인적이며 우연적인 소행이 아니라 치부와 자본의 시초축적을 위한 영국통치배들의 국가정책이었으며 지어 그것은 《애국적소행》으로까지 찬양되였다.

영국통치배들의 비호와 지원밑에 영국에서 자라난 광란적인 식민주의자들, 북아메리카령토의 강탈자들이 바로 미국양키들의 조상이였다.

당시의 노예상인들은 1명당 50US\$(달러, 미국화폐단위)에 산 아프리카의 흑인노예들을 아메리카대륙에 와서는 그의 8배인 400US\$에 팔아먹었다고 한다.

《노예사냥군》들은 흑인들을 붙잡아 락인을 찍은 후 몇명씩 쇠줄로 묶어서 노예선에 실어 물건짝처럼 취급하였는데 대양을 건느는 도중 한배에서 30~40명의 흑인들이 무리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노예사냥과 노예무역과정에 1억 5천만명이상의 건장한 아프리카흑인들이 죽었다고 한다.

아메리카에 끌려간 흑인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무리 건장한 노예인 경우에도 6~7년간 마소처럼 고역에 시달리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죽어버렸다. 이와 반면에 식민주의자들은 노예들의 죽음의 대가로 면, 담배를 비롯한 농산물들을 수출하여 막대한 경제적리득을 얻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미국국가형성의 경제적토대로 되였다.

인디안들에 대한 인종말살과 토지와 재물의 략탈, 흑인노예무역과 노예로동의 강요라는 인종주의의 뿌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반동적인 인종주의국가인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을 자래웠으며 그후부터 미국은 인종주의국가의 아성으로서, 표본으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세계앞에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미국이 인종주의의 아성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국가형성후 미국이 극히 악랄한 인종주의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기때문이다.

미제의 어용선전기관들은 미국이 마치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표본》인듯이 설교하고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기만이며 인민들에 대한 우롱인가 하는것은 미제의 인종주의정책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의 악랄한 인종주의정책에 의하여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백인이 아니라는 오직 한가지 리유로 인종차별과 멸시, 불평등과 무권리,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의 인종주의정책의 악랄성은 우선 유색인들을 백인들과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인종격리정책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인종격리정책의 첫 희생자는 인디안이였다.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안을 대량학살하고 그들의 토지를 략탈하여 령토를 팽창한 미국인종주의자들은 이미 19세기 30년대부터 살아남은 인디안들을 사람이 살지 못할 외진 곳에 설치하여놓은 《인디안지정보호구역》으로 추방하였으며 오늘도 인디안격리정책을 계속 실시하고있다. 철창없는 감옥인 《인디안지정보호구역》에 갇힌 인디안들은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속에 헤매고있다. 미국인종주의자들은 인디안들을 멸종시키기 위하여 유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단종수술까지 강요하였다.

흑인들도 인종격리정책의 희생물로 되었다. 미제는 남북전쟁이후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얻은듯이 설교하면서 남북전쟁과정에 선포된 《노예해방》이란 위선적인 구호를 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흑인들의 해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예해방》을 선포한 링컨도 노예제도가 폐지되어도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그들은 따로 갈라져 사는것이 좋다고 떠벌이었다. 이것은 미국인종주의자들이 떠드는 《노예해방》이 흑인노예제도를 흑인격리제도로 바꾸어놓았을뿐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실지로 미국인종주의자들은 19세기 80년대부터 악명높은 《칩크로우법》을 내놓고 흑인격리제도를 합법화하기 시작하였다. 흑인격리정책은 처음에는 기차, 버스과 같은 교통운수수단을 《백인용》과 《유색인용》으로 분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학교와 극장, 식당과 리발소 지어 만민의 《평등》과 《박애》를 설교하는 교회에까지 확대하였다.

오늘도 미국의 많은 도시들의 이르는 곳마다에 《백인전용》, 《흑인출입금지》라는 패쪽을 볼수 있으며 흑인들이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죄아닌 죄로 인종주의자들에 의하여 생활상 많은 제한과 고통을 받고있다.

미국의 인종주의정책의 악랄성은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시된 유색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미국통치배들은 그들의 불만과 투쟁을 눅갓히기 위하여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종격리정책을 형식상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허용된 인종차별정책으로 바꾸었다.

통치배들은 교통기관, 공공시설들에서 인종격리를 금지시킨다, 흑인의 고용추진 등을 규정한 법을 내놓다 어쩐다 하며 흑인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듯이 선전하였다. 실례로 1964년에 선거자명부작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및 해고, 사회적직무를 맡길 때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할데 대한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인종격리를 반대한다는 이러한 법들은 실질적으로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들에게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통치배들은 법에서 해당 법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제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것은 물론 국가기관들의 인종차별에 대하여서는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개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흑인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은 각종 자격과 제한조건을 만들어 대다수 흑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흑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고있으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백인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1984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미국지배계급의 인종주의정체를 가리우고 인종주의자들을 암암리에 부추기기 위하여 《인종적중립》의 구호를 내들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흑인들과 소수 민족들의 불만을 눅갓히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들에게 할당하였던 얼마 안되는 인원선발지표들마저 없어졌다. 미국반동지배층은 《빈곤한 계층》에 속하는것이 특전을 받을수 있는 근거로 될수 없다고 뇌까리면서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날뛰는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미국의 인종주의정책의 악랄성은 또한 인종테로에서도 잘 드러나고있다.

미국에서는 《3케이단》과 같은 전문적인 테로단체들이 로골적으로 활개치면서 흑인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있다.

특히 흑인들에 대한 파쇼테로를 미친듯이 감행하는 《3케이단》은 백인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존재가 인종전쟁에 대비한것이라고 주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파쇼테로단체이다. 1860년대 중엽에 조직된 《3케이단》은 오늘까지도 미국반동지배층과 한배속이 되어 린치의 방법으로 수많은 흑인활동가들을 살해하고있다.

미국에서는 테로단체뿐아니라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들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의 생명을 빼앗고있다. 미국통치배들이 흑인을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혀 인종주의국가로서의 미국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하여도 그 기만성은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흑인을 위주로 한 감금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실험 등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감행되고있으며 백인이 아닌 인종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들이 계속되고있다.

특히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사살사건들이 당국에 의하여 비호되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화적인 항의행동이 가혹하게 탄압받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수천만명의 유색인들과 소수 민족들에게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박해와 차별을 강요하고있는 악랄한 인종주의정책으로 하여 오늘 미국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악독한 유린자이며 인종주의의 아성으로 규탄받고있다.

미국이 인종주의의 아성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인종주의를 저들의 대외침략의 사상적무기로 리용하고있기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현대판파시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지난날 히틀러파쇼도당의 본을 따서 앵글로-색슨족의 《우월성》을 떠벌이면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우선 침략과 전쟁을 통하여 인종주의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에서 감행한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만행들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이 골수까지 찬 미제의 인종멸시정책의 뚜렷한 표현이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시기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 가장 야만적인 살인수법들을 총동원하여 남너로소를 가리지 않고 조선인민을 무참히 살육하였으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까지 사용하였다.

미제는 그후 웰남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유고슬라비아전쟁을 비롯하여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인간도살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의 이 모든 책동은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의 침략과 지배, 증오와 멸시를 합리화하는 인종주의사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오늘까지도 미제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정책작성과 그 실현의 사상적기초로 되고있다.

미제는 또한 세계도처에서 인민들에 대한 인종멸살 및 인종멸시정책을 감행하는것과 함께 오늘 지구상의 모든 추악한 인종주의의 조종자, 비호자로 나서고있다.

지난 시기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저지른 만행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자들이 흑인들을 《흑인거주지역》으로 추방하고 흑인들에 대한 흑독한 격리정책을 실시한것은 사실상 미국의 본을 딴것이였다.

오늘 중근동지역에서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교란하고있는데 앞장

서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책동도 미제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후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제는 유대복고주의자들을 사촉하여 1948년에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하고 그로 하여금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그들이 강점지역에서 아랍족에 대한 야수적인 인종주의적테로를 감행하도록 부추기고 눈감아주고있다.

미제국주의가 인종주의국가로, 인종주의의 아성으로 된것은 독점자본가들이 지배하는 미국의 사회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다.

인디안들의 해골더미우에서 아프리카흑인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독버섯처럼 솟아난 미국은 생겨난 첫날부터 끊임없는 전쟁과 략탈, 파괴음모책동으로써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으며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인류가 쌓은 문명과 재부를 파괴략탈한 대가로 살찌왔다.

인종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곳에서 세계인민들을 위협하는 인종주의도당들을 쓸어버려야 하며 특히 그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는 반미투쟁에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 반미투쟁을 떠나서 반인종주의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 오늘의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